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4년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고창군이 23일 아산면 상감리 '고창쌀 브랜드화 품종비교 전 시포'에서 벼 재배 농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벼농사 문제점과 개선점 토론이 열렸다. 이어 한결RPC 박종대 대표가 고창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 실천기술과 친환경농업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신품종 벼를 사재한 시업포장을 돌아보며 품종특성 파악,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 시연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고창쌀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적응 대표품종과 최근 육성된 고품질 벼를 비롯한 26개 품종을 비교 전시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신청방법 등을 소개하여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 페스타' 사전 티켓 판매 개시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변산해수욕장서 개최(10.11~13/3일간)되는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레드와인 페스타' 사전티켓 판매가 10월 7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와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을 주제로 펼쳐지는 2024 부안붉은노을축제 '레드와인페스타'는 부안 지역와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와인 본향을 음료가 지 준비돼 있어 와인 애호가 뿐만 아니라 축제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레드와인 페스타는 변산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며, 일반 와인과 함께 세프가 직접 요리해 주는 다양한 음식과 고급와인을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존이 운영돼 규모를 확장했다.

레드와인 페스타 사전티켓은 10월 7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부안노을축제.com)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 선정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리다' 는 주제로 내년 10월 진행

고창군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5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신청을 받아 8월, 발표심사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

'고창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유산인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리다' 라는 주제로 내년 10월, 고인돌 유적지와 고창 갯벌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개막식, 사진전, 특별전, 사진·그림·영상 공모전, 문화공연 및 체험,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읍시, 신혼·청년 주거안정 정책 강화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연1회 최대 300만원... 10월 1일부터 접수

정읍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 역시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 후 10년 이내(2014년 10월 1일~2024년 9월 30

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80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올해 상반기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최대 300만원(연 1회)까지 지급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

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민마당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채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으로 청년 세대가 정읍에서 인력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다양한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큰도약, 더 좋은 고창' 다짐

고창군, 간부공무원 워크숍... 공직자역량 강화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21일(1박2일) 선운산유스호스텔서 고창군청 간부공무원 67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3개 분야 현안(제1회 모양성제 관광객 유치)을 위한 국민홍보 방안,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인구 소멸과 인구정책 대응 방안) 주제로 3분임의로 나누어 열린 토론을 실시한 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가인 최덕림 강사를 초청해 '적극행정을 위한 공공혁신: WHY&HOW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사가 공직생활 중 추진했던 적극행정 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최덕림 강사는 "공무원의 눈물은 국민의 행복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



민들의 삶에 대한 공직자들의 깊은 공감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한 간부공무원은 "동료 공직자들과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공직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읍 무성서원, 추향제 봉행

정읍시 무성서원(원장 임장욱)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영영선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유림 및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향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의 전통을 이어가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그 업적을 제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성서원은 국가 지정 사적 제166호로, 신라 말 태산 군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태산서원이 그 뿌리다. 1698년(숙종 22년)에 '무성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아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됐다.

무성서원에는 최치원 선생 외에도 조선 중종 때 태인현감을 역임한 신잠, 가사 문학의 효시인 '상춘곡'의



정국인, 송세립, 정연충, 김약목, 김관 등 여러 성현들을 모시고 있다. 또한 구한말 병오년에 면담 최익현이 일제에 항거하며 구국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다.

추향제의 초헌관으로 나선 영영선 도의원은 "서원에 모신 최치원 선생을 비롯한 성현들의 삶과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부안우체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안우체국 임직원 일동 250만원 고향사랑 기부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욱)은 지난 20일 부안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우체국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50만 원을 기탁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임선욱 부안우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안군과



부안우체국은 고향사랑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 관련 우체국 인프라를 제공·활용하고 부안에 맞는 기금사업의 발굴·제

안 등 채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우체국과의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며 "임직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부안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선욱 부안우체국장은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우리 우체국 임직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부안우체국의 인프라와 함께 부안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 전략 중간 점검

정읍시는 지난 19일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한 시 지표 담당부서와 자문위원 등 총 2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진이 작성한 기본계획 내용을 경청하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의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인 등 5개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46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시는 2025년 3월 29일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